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아침 밤{으로/에는/은} 추워요.”라는 표현들은 어떤 의미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밖{으로/에} 나가자.”에서는 ‘으로’와 ‘에’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세계{로/\*에} 나가자.”에서는 왜 ‘로’만 쓸 수 있습니까?

(하마다 유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답** 1. 아침 밤으로는 추워요.  
2. 아침 밤에는 추워요.

위 두 문장의 의미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 때’, ‘-의 동안’, ‘-의 기간을 통하여’라는 의미는 1의 {으로}와 2의 {에}가 공통으로 지닙니다. 그러나 1의 {으로는}은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2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으로(는)}의 더 많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어부들이 밤으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다.
- 봄 가을로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한다.
-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쌀쌀해졌다.
- 3, 4, 5의 {으로(는)}도 어떤 시간 표시어 아래에 쓰여, 그동안 어떤 경험

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아침 밤은 추워요.” 또는 “아침 밤에는 추워요.”라고 하면 “낮은(=낮에는) 춥지 않지만(또는 ‘덥지만’), 아침과 밤은(=아침과 밤에는) 추워요”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추운 날씨가 그 날 하루에 그친다거나 다른 날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날은 그렇다는 속 뜻을 전달하기는 해도 추운 날씨가 여러 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속 뜻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는 ‘밖에 나가자’라고 대치해도 말이 되는데, ‘세계로 나가자’를 ‘\*세계에 나가자’라고 대치할 수 없는 까닭은 조사 {로}와 {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는 처소, {로}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에}는 구체성을 띤 장소나 지점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비해 {로}는 ‘-의 쪽, -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지녀서 행동의 목표가 되는 특정 장소가 아닌 그 일대의 장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차를 다리 앞에 멈추었다.
7. \*차를 다리 앞으로 멈추었다.
8. \*정현이는 문쪽에 걸어갔다.
9. 정현이는 문쪽으로 걸어갔다.
10. 지금 어디에 가요?
11. 지금 어디로 가요?

7은 처소의 문맥이어야만 할 자리에 방향을 나타내는 {로}를 썼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은 방향의 문맥이어야만 할 자리에 처소를 나타내는 {에}를 썼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10, 11은 처소든 방향이든 상관없는, 즉 둘 다 가능한 문맥이므로 {에}도 좋고 {로}도 좋은 문장이 됩니다.

질문하신 예문 ‘밖에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는 처소, 방향 어느 쪽의 의

미로도 쓸 수 있는 문맥이므로 처소일 때에는 {에}를 취하고 방향일 때에는 {로}를 취하여 둘 다 좋은 문장이 됩니다. (이는 성질상 앞의 10, 11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나가자’, ‘세계로 나가자’는 방향의 문맥이어야만 할 자리이므로 처소의 {에}가 쓰인 문장은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는 성질상 앞의 8, 9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공간인 ‘세계’는 구체적인 ‘처소’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의 의미로 쓰이는 ‘세계로 나가자’만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음** 비슷한 환경인 것 같은데 ‘부엌에서’는 [부어케서]로 발음하지만, ‘겉옷에서’는 [거토세서]로 발음하지 않고 [거도세서]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미연, 수원시 권선구 팔달동)

**답** 우리말에서 받침 있는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등)가 이어지는 경우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명사’,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등)가 이어지는 경우에 발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엌에서’는 ‘부엌’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에서’가 이어지므로 [부어케서]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겉옷에서’는 ‘옷’ 뒤에 형식 형태소 ‘에서’가 이어지므로 연음되어 [오세서]로 발음하는 것은 [부어케서]와 마찬가지로 맞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겉옷’이라는 합성 명사의 발음입니다.

‘겉옷’은 ‘겉’이라는 명사(실질 형태소)와 ‘옷’이라는 명사(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이 단어의 발음은 [거튼]이 될 수 없고 [거튼]←[겉은]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 발음법 제15항에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겉옷[겉은→거돋]’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음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밭 아래[반 아래→바다래],	늪 앞[늪 앞→느밭],
젓어미[절어미→저더미],	맛없다[만엿따→마덥따],
헛웃음[현우슴→허두슴],	꽃 위[꼴 위→꼬뒤],
넋 없다[넉 엿따→너겉따],	닭 앞에[닥 아페→다가페],
값어치[갑어치→가버치],	값있는[갑인는→가빈는]

‘겉은’도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거돋]으로 발음되지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므로 ‘겉옷에서’는 [거도테서]가 아닌 [거도세서]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물음** “그가 사흘 간 머물은 곳은 가끔 들리는 시끄러운 아기 울음소리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 만한 데였다.”라는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답** “그가 사흘간 머물(또는 ‘머무른’) 곳은 가끔 들리는 시끄러운 아기 울음소리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 만한 데였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시하신 문장 중 수정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간’의 ‘-간’은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석 달간’, ‘이십 일간’, ‘닷새간’처럼 항상 앞말에 붙여 씁니

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접미사 ‘-간’과 의존명사 ‘간’의 구별입니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또는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간’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남북 간 정상 회담’, ‘선후배 간에 정이 두텁다.’처럼 띄어서 쓰셔야 맞습니다. 다만 ‘고부간, 남매간, 부부간, 내외간, 모녀간, 동배간’ 등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는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머물은’을 ‘머문’ 또는 ‘머무른’으로 고치는 것은 표준어 규정에 근거합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본말과 준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말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표준어 규정 제16항)에서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 머물다’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인데 본말인 ‘머무르다’의 어간은 모음으로 끝나지만 ‘머물다’의 어간은 자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6항에 따르면 ‘머무르다’와 ‘머물다’는 각각 ‘머무르고 : 머물고’, ‘머무르니 : 머무니(‘머물-’과 ‘-니’가 결합하려면 ‘머무니’로 ‘ㄹ’이 자동적으로 탈락함), ‘머무르는 : 머무는(‘머물-’과 ‘-는’이 결합하려면 ‘머무는’으로 ‘ㄹ’이 자동적으로 탈락함), ‘머무른 : 머문(‘머물-’과 ‘-니’가 결합하려면 ‘머문’으로 ‘ㄹ’이 자동적으로 탈락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물러’(‘ㄹ’ 불규칙 동사이므로 ‘머무르-’와 ‘-어’가 결합하려면 ‘머물러’로 실현됨)는 표준어이지만 ‘\*머물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머물어’는 준말 형태의 어간 ‘머물-’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가 결합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시하신 문장의 ‘머물은’도 ‘머물-’에 모음 어미인 ‘-은’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어가 될 수 없으며 ‘머문’(또는 ‘머무른’)이라고 표기하여야 표준어가 됩니다. ‘머무르다 : 머물다’ 외에 ‘서두르다 : 서둘다’, ‘서투르다 : 서툴다’, ‘가지다 : 갖다’ 같은 것들이 지금 말한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가진 단어들이며 표준어 규정에 근거해 ‘\*서둘어, \*서툴어, \*갖으니, \*갖은’ 등은 표준어가 아니며 ‘서둘러, 서툴러, 가지니, 가진’이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나 ‘외우다 : 외다’는 본말과 준말 관계이지만 ‘외우고 : 외고’, ‘외우니 : 외니’, ‘외워 : 외어’, ‘외웠다 : 외었다’, ‘외운 : 윈’처럼 두 말에 자음 어미든 모음 어미든 자유롭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준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어미 ‘-ㄴ 데’와 띄어 써야 하는 의존 명사 ‘데’를 혼동해서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시하신 문장에서 나온 ‘지널 만한 데였다’에서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데 앞말과 늘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데는 처음 가봤어’,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가자’에서 ‘데’는 ‘곳’이나 ‘장소’로 말을 바꾸어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 명사 ‘데’는 ‘것, 일, 경우’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띄어 써야 합니다.(예: 책을 다 읽는 데(에) 삼 일이 걸렸다. 졸업장을 따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머리 아픈 데(에) 먹는 약,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 데(에)나 쓴다.)

어미 ‘-ㄴ 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말할 때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의 구실과 해할 자리에서 어떤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의 구실을 합니다. 다음의 예들은 어미 ‘-ㄴ 데’가 쓰인 것들로 항상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 반팔로 갈아 입고 나가거라.

그 옷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데.

**물음** 저는 가끔 아내를 ‘마누라’ 하고 부르는데 그걸 듣는 아내는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여보’ 하고 부르는 것보다 ‘마누라’ 하고 부르는 것이 더 정감 있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누라’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인가요?

(김재영, 서울시 양천구 목1동)

**답**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데도 다양한 호칭어(부름말)와 지칭어(가리킴말)가 있다는 점이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호칭어, 지칭어가 너무 다양해서 무척 배우기 힘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부르는 말도 다른 호칭어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특히 신혼 초, 아이가 있을 때, 장년과 노년으로 그 부르는 말이 나누어져 있어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어는 ‘여보’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의 호칭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혼 초에 한하여 ‘○○ 씨’ 라고 하거나 ‘여봐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씨’나 ‘여봐요’는 부부 간의 정식 호칭인 ‘여보’로 넘어가기 전에 쓰는 과도기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을 때에는 ‘여보’와 함께 아이 이름을 넣어 ‘○○ 어머니’, ‘○○ 엄마’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와 함께 ‘임자’, 그리고 손자, 손녀 이름을 넣어 ‘○○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마누라’ 하고 아내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아내들은 ‘마누라’라는 말이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할 만한 호칭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상황에서는 정감 넘치는 말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누라’는 원래 ‘마노라’의 형태로 써서 ‘상전(영감님, 마나님, 마님), 임금, 왕비, 아내’ 등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에 이르면 의미 영역이 좁아지고 의미 가치도 낮아져서 ‘늙은 노파’를 가리키거나 ‘안해(>아내)의 속어’로 쓰인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현대 국어에서 ‘마누라’는 ‘아내’의 지칭어로서 품위를 잃어버렸다고 판단됩니다.

아내에 대한 호칭어 못지않게 아내에 대한 지칭어도 다양합니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미’, ‘어멈’ 또는 여기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은 ‘○○ 어미’, ‘○○ 어멈’, 그리고 ‘그 사람’ 등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 엄마’를 피하고 그 대신 ‘○○ 어미’, ‘○○ 어멈’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앞에 없을 때의 지칭어이고,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이 사람’, 대화의 현장에 있되 떨어져 있을 때는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친부모에게 가리킬 때와 다릅니다. 장인, 장모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 어미’, ‘○○ 어멈’, ‘○○ 엄마’,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친부모에게 말할 때와 달리 ‘○○ 엄마’를 포함시킨 것은 장인, 장모에게는 그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인 형수, 제수, 매부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아래 남동생과 누이동생에게는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라고 지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앞에 ‘너의’를 넣어 ‘너의 형수’, ‘너의 언니’, ‘너의 새언니’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를 부르는 말과 지칭하는 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구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음** 로마자로 인명을 표기할 때, 성과 이름은 어떤 순서로 쓰고 이름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를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쓸 때에도 ‘이석인’을 [이서긴]이라는 발음대로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석인, 부산시 진구 부전동)

**답** 로마자로 인명을 표기할 때에도 한글로 쓰는 것과 같이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각 첫 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민용하 Min Yongha(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Song Na-ri)

다음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4항을 살펴보면,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복남’과 ‘홍빛나’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서 자음 동화로 [한복남], [홍빈나]라고 발음하지만,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2)와 같이 글자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이름 ‘석인’은 [서긴]이라고 연음해서 발음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을 때에는 ‘Seogin’이 아니라, ‘Seokin’으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2) 한복남 Han Boknam (O)

Han Bongnam (X)  
홍빛나 Hong Bitna (O)  
Hong Binna(X)

‘한복남’과 ‘홍빛나’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글자 그대로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Han Boknam(←한복남)’, ‘Hong Bitna(←홍빔나)’ 식의 표기에서 드러나듯이, 이름에서 자음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발음 법칙(=받침 규칙)은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토박이말 이름 ‘한빛나’에서 나타나는 받침 ‘ㅌ’은 대표음 ‘t’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표기는 현재 정해진 원칙이 없으므로, 로마자 표기법대로 쓰거나 관례대로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석인’이라는 이름은 ‘I Seokin’ 또는 ‘I Seok-in’으로 쓸 수 있으며, 성 ‘I’는 ‘Lee’와 같이 관례대로 쓸 수 있습니다.